

그때 그 시절엔

어느덧 경희가 45주년을 맞이하였다. 연대별로 50년대 배태영 교수님, 60년대 도정일 교수님, 70년대 고원정 소설가, 80년대 이동선 교수님을 만나 그분들의 학창시절을 들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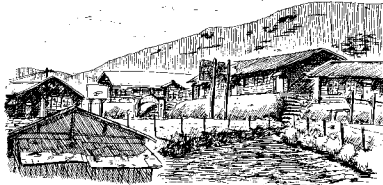
제 1회 졸업생인 배태영(외대·영문과 명예교수)의 대학시절은 부산의 가교사 시절. 전쟁중에는 부산으로 피난가서 세워진 '신흥대학'은 영어와 중국어와 국문과의 인원 2백명이 채 안되는 학교였다.

52년 동광동 가교사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 받은지 얼마안된, 화제이던 배태영은 가교사를 옮겼다. 전시에 가교사를 마친 듯한 대학들은 전지연대학을 세워 함께 공부한것에 비해 대신들 가교사는 7백평 부지에 강당과 도서관 운동장까지 갖춘 대학이었다고 한다.

50년대 가교사 주변은 피난민들이 사는 판자촌이 대부분이었고 영어교과서를 제외하고는 교과서가 없어 모두 받아 적어 가며 공부해야만 했다. 학생들은 1/3이상이 직장이 있었고 나이 차이도 많았지만 함께 모이면 전공이나 문학작품,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얘기를 학과공부에 대한 열정을 대었다. 54년 3월 서울로 복귀한 후 허허벌판에 건물이 하나씩 들어섰고 당시 동문들은 대단히 웅장해서 그 시절에도 경희대학의 자랑거리였다.

배태영 교수는 그시절에는 지금과 같이 사제시간의 정이 돈독했다며 현대의 대학생들과 교수님간에 진정한 이해와 대화가 없는 것을 안타까와 한다.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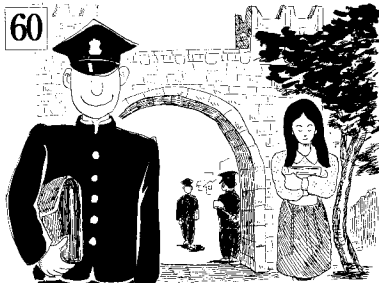
교 북에 보자 쓰고 배지 달던 시절의 61학번 도정일(문리대·영문)교수의 학창시절. 청바지 문화가 시작되기 전으로 남학생들은 군복에 정장들을 두어 입고 여학생들은 치마입석의 복장에 남녀학생들 사이에는 존경을 쓰던 시절로 60년대초 개원하였던 지금의 집으로 양쪽으로는 민가와 강구강 다방 중점적 몇개가 전부였다고 한다.

학생들이 여가를 즐기러던 위경동 토라리나 시내로 나가야 했다. 탁구나 당구를 치거나 대한과장이나 단상사로 영화를 보러가기도 했다. 지금은 그 문화가 없어졌지만 음악극장이 대학생들 사이에 대단한 인기였다고 한다. 당시 대학생들은 우산 쓴 줄이 없어 그냥 비를 맞고 다닐 정도로 대부분 그런 궁핍한 환경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도정일 교수는 장차 시·국사·에서 방학을 지냈는데 겨울에 수조가 얼어 풀이 안나올때만 ABC와 고개 넘어 산에 쌓인 눈을 퍼다 녹여서 식수로 사용했다니 그 시절을 어렵게이 짐작할 수 있었다.

도교수는 "교육의 질과 여건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지만 모든 것이 모자라고 궁핍하던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풍족함과 대학문화의 상업화는 오히려 교육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한다.

60



'빙' 배, '최후의 제명령'으로 시대를 앞서보는 소설가라는 평을 듣고 있는 고원정(국문·74)동문은 74년 입학하여 대학원까지 6년간 배 대학을 다닌 70년대의 경이로. 당시 회기들은 부교동 생활으로 학생들은 나치나 빈대때에 소주를 먹으며 한 책방인 '대학서점'에서 주로 한 책을 사 보았다고 한다. 또한 1천원 정도만 가지고 2-3명씩은 술을 한 술도 있었지만 시절. 회기시절 쪽에 위치한 세 동서와 각각 정영하던 '큰아침', '작은 아침', '작은 열아침'은 3차까지 차례로 돌로기에 돌던 곳이었다고 한다. 당시 황순원교수·조병화교수등과 날씨 좋은 날에는 이의수업은 하며 회와 인생을 만났다고도 한다. 지금의 재원프라자라는 당시 문화인의 전당으로 꼽히던 곳으로 50원이면 '영화'를 볼 수 있었던 대학극장이었다. 아직 투쟁적이기도 학문적이기도 했던 70년대는 그야말로 자유분방하던 시절. 학교 근처에서 술에 취한 남이던 비단어울을 잡는다고 신동호에 뛰어들기도 했던 에피소드도 있다. '동행금지'가 있던 시절이나 만큼 여학생이 하숙집에서 밤늦도록 대화가 끊이지 않던 시절. 자유로움과 멋이 있던 경희인들에게 전 정신적으로 한없이 넉넉하던 시기가 70년대가 아닌가 싶다.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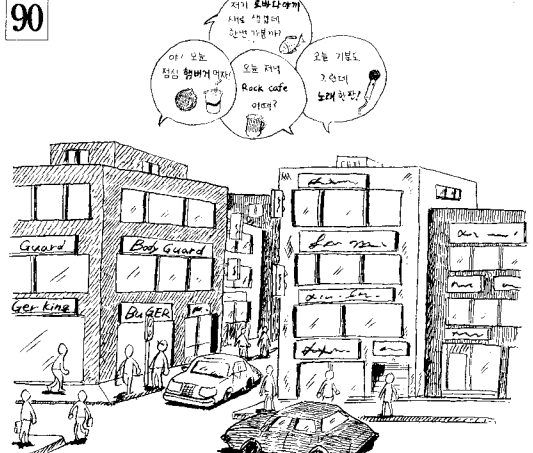


정 치외교학과 80학번인 이동선(분교장사·정치학)동문은 60·70년대와 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80년대를 분석한다. 그 변화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들은 '졸업정원제'로 넘어진 대학문, 교육자문화의 권위TV를 보아온 당시의 신세대들의 대학입학 때문이다. 이에 80년대 들어 터를 잡아가는 회기들은 대학문화가 80년대 중순에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센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다방입석이던 회기들이 '심포니'라는 카페가 생겼고 '이보우악사'도 이즈음 생긴 것이었다. 한편 회기의 오른쪽에 생긴 '그대 파견지'이 성공하면서 유명한 경희대 파견공작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80년의 봄' 등 민주화의 파장과 태동을 동시에 맞은 시절. 첫 '월화모듬'자리에 위치한 '동글다방'에서는 '경희극회'나 각종 문화제들이 모여 온빈하고도 격렬한 토론장소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구수한 정취는 사라지고도 격렬한 토론장소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구수한 정취는 사라지고도 격렬한 토론장소가 되기도 했다. 또한 구수한 정취는 사라지고도 격렬한 토론장소가 되기도 했다.

80



90



80년대부터 상업화가 시작되어온 대학가는 90년대들어 전일로 주변만이 아닌 골목길까지 유흥·향락적인 상가들이 들어섬에 따라 대학생들의 소비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학구적이고 생산적이어야 할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상업 시설 차량과 함께 파스나 문화 현상의 하나로 늘어나는 학생차량은 심각한 교통 혼란을 낳아 캠퍼스 주변이 주차장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안전되고 있는 소비 향락적인 문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문화공간의 설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그에 앞서 학생들의 의식이 건강함을 회복하여야 할 것이다.

인터뷰 경희대 준 회원



아직 대학가가 소수문 화였던 83년 문을 만났게 만나는 초보집중 하나였던 '열반'은 이 전 경희대에서의 오랜 역사를 자랑한다. 본격적으로 노노루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고 어느정도 선을 지킨다면 노력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외상으로 가능한 것이 일 번지 일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클래식음악이 깔리는 카페안은 은은한 멜로디로, 백남준의 물결과 함께 거꾸로 돌아가는 아날로그 시대를 자랑한다. 학생시절에는 해비탈 담 그늘에서 활동도 하였다는 김이진(40)씨가 83년 교직원연임을 들어주는 '심포니'의 문을 연지 12년, 그동안 도매한 것과 오로 시스틴 문을 보았던 것 외에는 한결같은 모습인 이곳은 이미 경희대의 명소가 되었다.

취재중에 한 학생이 차비를 빌리려 했다. 이치만 주인 아버지 허목(52)씨와 학생들간의 유대관계는 특별하다. 학생운동을 하다 농사짓는 학생의 농산물들을 지

단을 손대던 유대생, 교수님들, 경제학도인 의료진, 음악대학의 학생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지분한 분위기와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플래시 카페를 경영한지 12년, 이제는 리더로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누가 작곡한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인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김씨는 학생들이 지어

일번지 바니양념치킨

숙적으로 구입하여 쓰는가 하면 지금은 결혼식이나 아기들때도 참석하여 식구처럼 지내는 한 81학번 정희와 학생은 한집에서 한동안 같이 살며 교감하기도 했을 정도이다.

클래식 카페 '심포니'

86년 국민학교 3학년이던 10살짜기 아들이 백혈병으로 입원하여 문을 닫게 되었을때는 학생들끼리 문에 '헌혈하실분은 구하나다'라는 대자보를 붙여놓고 돌아가면서 가게를 바꾸기도 하였고, 15~16세의 학생이 헌혈을 하러 병원에 몰려 갔을때 80년대대대 상경대문에 병원을 정가·농성 하는것으로 오해 받아 학생들이 경찰조사를 받은 일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안락하게 아들이, 헌혈받은 피를 수혈 한번 믿지 못하고 수술은 실패했지만,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기회가 없었더라면 언제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었다고 돌고 싶다고 말한다.

'나도 경희대 앞에서 이정도 있었으니 경희원은 안되더라도 준회원쯤은 안되겠나라'고 웃었다.

한편, 김씨는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등록금도 빌려주고 술값이 모자라 쉼이되면 술값도 빌려주는 학생들의 친구이기도 하다.또한 그동안 이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성공한 커피가 세상이 나왔는데 그 성공이엔 없는 김씨의 중재역할이 컸다고 한다. 근래에 무심하게 들어서서 유흥업소들 속에선 예전에 대학거리의 낭만이 느껴지 힘들다. 요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어느 카페전점처럼 화려하고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심포니'는 음악을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조용하게 얘기하고 독서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되고 있다.

무한·책·인·주의
기초·필수·필수

1994년 4월 27일-
태평양 사람 14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